

나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 ‘온라인 공실박람회’

공실 해결 모색...상권회복 시도
임대정보·지원정책까지 한눈에
인구 4만대 정제... 공실률 43.4%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기반 ‘공실 박람회’를 개최하며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23일부터 12월7일까지 약 6개월 간 혁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온라인 중심 상가 공실 정보 매칭 플랫폼으로 예비 임차인에게 건물별, 매물별 공실 세부 정보 제공과 추진 중인 정부, 지자체 지원책 및 활용 능한 상권정보를 통합 안내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접



근성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박람회 전용 사이트 시연회를 열고 콘텐

츠 구성과 시스템 접근성, 정보의 전달력 등을 최종 점검했다.

박람회는 전용 누리집(www.bizplacefair.com)을 통해 누구나 접속 가능하며 나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연동 접속을 지원한다.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소문내기 이벤트’도 개막일인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나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혁신도시 내 전체 상가(2023년 10월 기준 6967실)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43.4%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인구 4만명 선에서 정체된 상태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공실 문제는 지역 상권과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요

한 현안이다”며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임대인에게는 효과적인 홍보의 기회를 임차인에게는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업용지 허용용도 확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함께 혁신도시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창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상업용지 허용용도 확대, 점포주택용지 주택전용 건축물 가구수 및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7월1일까지 시민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함평군, 청년문화센터 건립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대
문화·체육·편의 시설 조성

전라남도 함평군은 25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조성 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60억원 등 총 114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인 청년문화센터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 시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일대에 406만여㎡ 규모로 조성 중이며 준공을 한 1단계 구역에는 자동차 부품 연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청년문화센터는 산단 내 근로자,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시절에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프랑스 클레르몽페랑시, 협약
청소년 교류·스포츠 등 6개 분야

전라남도 나주시가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도시 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23일)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올리비에 비앙키 시장과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하고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둔 올해를 계기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도시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호 우호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 △문화교류 확대 △농업 및 정책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협력 분야로는 △청소년 교류 △스포츠 프로그램 연계 △학교 및 대학 간 교육협력 △한불 문화축제 및 예술인 교류 △지속가능한 농업모델 확산 △공무원 교류 및 정책 공유 등 6개 분야가 제시됐다.

양 도시는 협약서에서 “자유, 민주주의, 평등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 발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클레르몽페랑시는 세계적인 교육·연구 중심지이자 단편영화제로 유명한 문화도시로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됐으며 글로벌 기업 마세린 본사가 위치해 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문화행사,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 ‘클레르몽페랑 국제 청소년 여름캠프’에 나주시 청소년 10명과 인솔자 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양 도시 간 미래세대 우정을 다지는 실질적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주와 클레르몽페랑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이자 전통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농촌 중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희 기자



지난 23일 화순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이 화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23일 화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훈련에는 화순소방서 소방위 김해원, 소방장 강성중 등 6명이 교관으로 참여해 △물놀이 안전 장비 사용법 △익수자 구조 요령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화순군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군청과 면 직원들을 투입해 비상근무에 돌입, 순찰·안전계도·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영군 주민안전과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휴일 비상근무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힘쓰는 만큼 이용객들께서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지게차·물류전산입력 실무 과정’ 교육생 모집

7월4일까지 20명

전라남도 화순군은 관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게차·물류전산입력 실무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전반기 동행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7월17일부터 8월1일까지 총 12일(4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물류관리 기초 이론 △

ERP(전산) 실습 △지게차 조작 및 운전 실습 등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RP(전산) 입력과 지게차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60세 이하 미취업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및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유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7월4일까지 화순고

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sjob0310@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061-870-7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만원임대주택’ 추가 모집 화순군, 신혼부부형 24호 30일부터 7일간 접수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만원임대주택’ 사업에서 신혼부부형 24호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선다.

군은 25일, 앞서 진행한 1차 모집에서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데다 입주 희망자의 지속적인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된 60호 가운데 최종 36호만 입주가 확정되면서 잔여 24호를 재공고하게 된 것이다.

만원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지역 현안 해결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이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와 올 하반기 내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우선 배정된다.

임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월 임대료는 1만원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시작해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30일부터 7일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1차 모집 이후에도 신혼부부형 추가 모집에 대한 문의가 계속돼왔다”며 “이번 모집이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초 진행된 1차 모집에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초기 신청률을 보완해 실수요자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